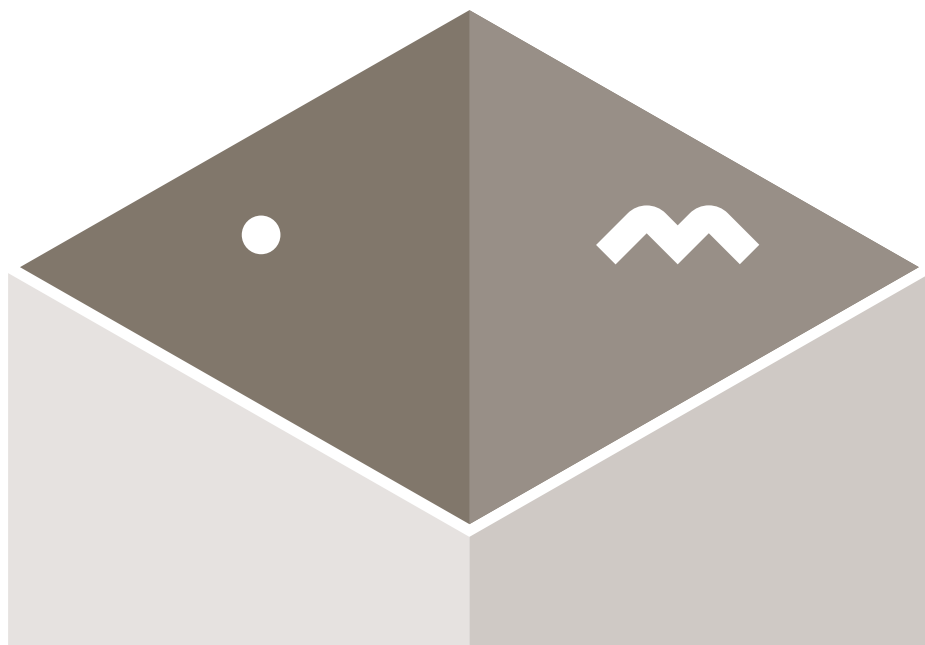




평생 학습 · 서울 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015

서울 평생학습 일 년을 담다



2015 연차보고서

평생학습 서울함

서울 평생학습 일 년을 담다

순서

06	인사말
08	Overview & Vision
10	2015 History
12	At a glance
<hr/>	
15	서울을 서울답게 평생학습 정책 개발
<hr/>	
16	발전계획과 전략과제 수립
18	서울시 평생교육통계 조사·분석
20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특성화 모델 발굴
<hr/>	
23	더 높이, 더 멀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hr/>	
24	문해교육교원 양성
26	서울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28	평생교육 역량강화 연수
<hr/>	
31	삶을 배움으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hr/>	
32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34	일-학습 선순환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36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38	시민이 말하다
<hr/>	
40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학습 대중화
<hr/>	
41	웹진 <다들>과 스마일프레스
48	진흥원 홍보기반 구축
50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hr/>	
52	2016 SMILE
54	서울은 학교다
56	함께하는 사람들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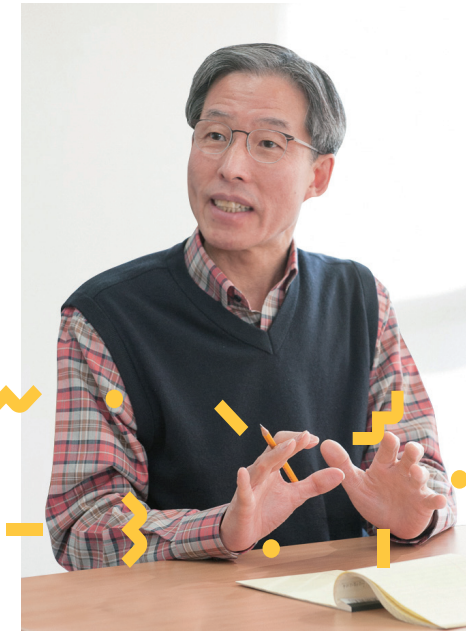
먼 길의 동행,
그 첫 걸음의 흔적입니다.

여기, 지난 한 해 내디딘 첫 걸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뒤늦은 출발이지만, 서두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툰 걸음이지만, 열심히 걸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 되돌아보는 지금,
성취의 보람보다 실수의 아쉬움이 앞섭니다.
허나, 지나온 길의 아픔은 가야할 길의 등불일 터,
몸을 추스르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SMILE,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로고입니다.
저희 진흥원에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Seoul Metropolita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의 앞글자를 모았습니다.
“배우면 웃는다”는 뜻이지요. 평생학습을 통해
서울 시민 모두 웃게 하자는 다짐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일깨우는 힘”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평생학습은 먼 길을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저희 진흥원에 오신 분들이 두 번째로 맞닥뜨리는
말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희 진흥원이 펴내는 웹진 <다들>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남겨 주신 글씨입니다. 현관 입구에 내걸린
이 글씨를 보면서 저희들은 늘 시민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꿈꿉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실린 원장 인사말의 제목입니다.
서울 평생학습을 부흥함으로써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는 담대한 포부입니다.
생활과 학습이 하나로 포개지는 꿈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소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학교다”
저희 진흥원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공간과 시설이 죄다 학교입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스승이자 학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도시,
그런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의 흔적 위에서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실수가 모두 저희 탓이듯이,
앞날의 성취와 보람 역시 저희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질책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장 김영철

Overview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민 누구나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교육받을 수 있기 위해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015년 5월 발랄한 활기를 품고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는 독립법인으로 재출발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의 풍부한
평생학습 민·관·학 인프라를 아우르고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의 노력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계속됩니다.

서울 평생학습 이념을 만든다

Vision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Metropolita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SMILE)이
꿈꾸는 미래 서울은
‘스마일’ 학습도시입니다.

서울 평생학습의 중심에서
삶이 곧 배움이고,
배움이 곧 행복한 도시
서울을 이루겠습니다.

‘스마일’ 학습도시, 서울 평생학습의 허브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평생학습을
소망하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선정한
‘평생학습 7대 가치’를 소개합니다.

1 	나와 세상을 새롭게 읽고 통찰하는	성찰의 학습
2 	삶의 현장에서 지식과 지혜를 쌓는	일상의 학습
3 	배움의 결실이 사회적 삶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학습
4 	지역 공동체와 사회의 소통과 연대를 향한	공감의 학습
5 	상상력이 넘치는 학습사회를 디자인하는	창조의 학습
6 	개인의 성장을 통해 공동체의 변화를 이끄는	실천의 학습
7 	성, 연령, 계층, 지역, 문화 등 모든 장벽을 넘는	모두의 학습

OVERVIEW & VISION

2015 History

5월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독립재단법인으로 출범
- 김영철 원장 취임
- 제1차 직원 공개 채용
- 정책사업기획단 1기 발족



6월

- '내가 만드는 서울 평생학습 키워드' 시민 설문 실시
- 제1차 서울 행복학습센터 거점센터 협의회 개최



7월

- 한국교육개발원과 평생학습통계 MOU 체결
-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 개인 실태조사> 실시
- 정책사업기획단 소위원회 <모두의 학교> 프로젝트 착수
- 제2차 직원 공개 채용

8월

- 서울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 일-학습 선순환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착수

9월

- 정책사업기획단 2기 발족
- 서울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착수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 평생교육 역량강화 연수 관리자 과정 개최

9월

10월

- 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 평생학습 네트워크 MOU 체결
- <서울 평생학습 네트워크 실태 분석 연구> 착수
- 서울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현장 방문 실시
- 학습-일 선순환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
-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서울 통합 홍보·체험관 운영

11월

- 웹진 <다들> 창간
- '평생교육 실무자의 행복한 시간(평행시)' 3회 실시
-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 양성 연수 실시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공인 자원봉사센터로 지정
- 행복학습매니저 직무역량 강화 연수
'배움으로 행복을 얻는 사람들' 실시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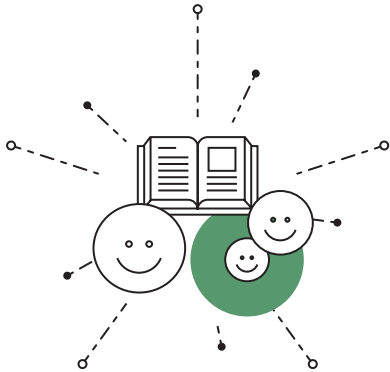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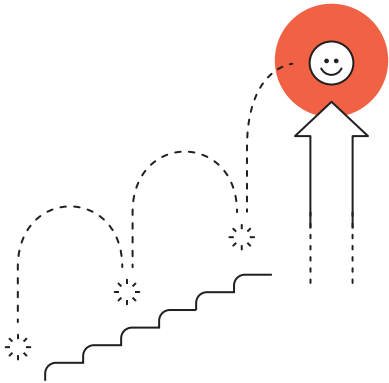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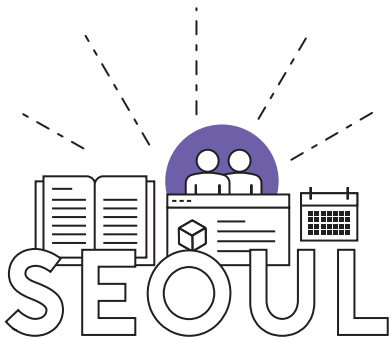
- <이슈브리프> 1호 발간
- 평생학습 네트워크 토크콘서트 개최
- 1인 1자율학습모임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
- 행복학습센터 성과 공유회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누리는
서울시 행복학습센터의 꿈' 개최
- 서울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회 개최
-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 양성 연수 이수증 수여



At a glance

2015년 본격적으로 닳을 올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한 해 동안 이렇게 일했습니다.

서울 평생학습의 역사를 담다



AT A GLANCE

서울을 서울답게
평생학습 정책 개발

특별한 도시, 서울에 알맞은 평생학습은 무엇일까요?
‘서울형’ 평생학습의 틀을 세우기 위해, 서울의 평생학습
환경과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인적·
물적 자원을 엮어내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수렴하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 평생학습의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자치구와 실무자의 힘이 곧 서울 평생학습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자치구 대상으로는 지역의 현안과
요구를 고려한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했습니다. 평생학습 실무자에게는 실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문해교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실 있는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문 연수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삶을 배움으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학습
생태계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일상이 곧 배움이 되는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인 행복학습센터의 운영을
지원했고, 배움을 넘어 그 자체가 사회 활동이 되는
다양한 학습동아리와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학습 대중화

서울시민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기 위해 평생학습 지식 정보의 공유 체제를
만들어갑니다. 개원 첫해만큼, 기관의 온라인 홍보
채널을 새로이 단장하고 CI 제작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서울 평생학습의 여러
모습을 언론을 통해 알렸습니다.

서울을 서울답게

평생학습 정책개발

발전계획과 전략과제 수립
서울시 평생교육통계 조사·분석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특성화 모델 발굴

발전계획과 전략과제 수립

‘대한민국 평생학습 르네상스’를 이끌겠다는
당찬 각오와 함께 출범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그 첫걸음으로, 미래를 이끌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중·장기 발전계획과 세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소통과 공감의 기관 제일의 가치임에 따라,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것은
물론이다. 평생학습 분야 내외의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공식 자문 조직인 ‘정책사업기획단’을 꾸려
진흥원 발전의 큰 줄기를 세웠고, 서울시 평생학습
및 유관 분야 요구 조사(FGI), 내부 직원의 의견
수렴 등을 거듭 거쳐 세부 전략 과제를 마련했다.

서울의, 나아가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시민과 함께 선정했다. 2,7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평생학습의 7대
가치인 ‘성찰·일상·순환·공감·창조·실천·모두의
학습’이 도출되었다.

사업 목적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내용

❶ 정책사업기획단 운영을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정책사업기획단 1기 운영(15.5~6월) :
서울 마스터플랜 시안 검토 및 진흥원 전략방향 논의
- 정책사업기획단(혁신기획단) 2기 운영(15.9~12월) :
진흥원 중장기 전략과제 도출 및 보고서 작성

❷ 서울시 평생교육 및 유관분야 요구조사(FGI)를 통한 전략과제 도출

- 자치구 대상 요구조사 : 면대면 2회, 서면 1회(15.9~10월)
- 유관 분야 요구조사 : 청년허브 등 4개 기관(15.9~10월)
- 진흥원 내부 요구조사 : 전 직원 대상(15. 10월)

❸ 시민 대상 온라인 조사를 통한 진흥원 비전 가치 도출

- 시민 2,742명 대상 평생학습 키워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여 ‘성찰·일상·순환·공감·창조·실천·모두의 학습’
가치 도출

서울형 평생학습을 위해

전략 슬로건

‘서울은 학교다’ 학습을 통해 웃을 수 있는 도시,
서울의 ‘지붕 없는 거대한 학교’ 생태계를
조성한다.

‘시민이 만든다’

서울시민이 주도적으로 ‘서울은 학교다’의
학습 생태계 조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터전(환경)을 조성한다.

‘현장이 성장한다’

서울지역 평생학습 수평적·수직적·다층적
현장의 조직 및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협력을 이끈다.

‘서울학습은 혁신한다’

서울 평생학습의 창조적 성장을 위해
혁신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추진 과제

- 시민학교
- 일터학교
- 마디학교(생애전환기 교육지원)
- 포용학교(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 평생학습 참여의 장 조성
- 평생학습 소통 채널 서비스
- 평생학습정보 공유 플랫폼 서비스

- 서울지역 평생학습 성장지원 서비스:
(개인차원)활동가 계속교육,
(조직차원)지역 컨설팅서비스
- 서울 평생학습 다층적 협의체 운영

- 시민 평생학습 진흥모델 개발
-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모델개발

◆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기획단



서울시 평생교육통계 조사·분석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평생학습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의 든든한 뿌리는 바로 통계일 것이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로서, 평생학습 통계를 통해 평생학습의 수요-공급 지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한국교육개발원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이루어진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받아 서울 평생학습 인프라 지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한편 서울시민에 대한 조사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와 참여 실태를 살펴볼 수 있었고, 데이터를 분석해 평생학습 참여율 등의 지표를 최초로 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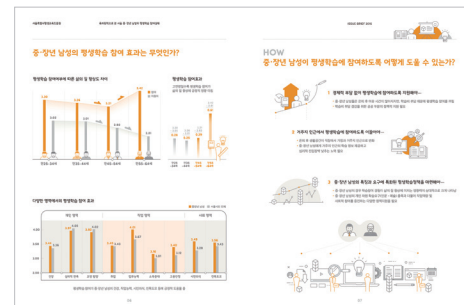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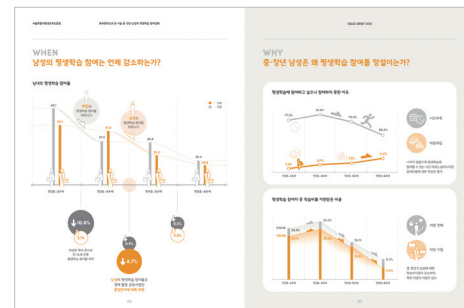
단순 조사와 분석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 객관적 데이터에 심층적인 분석의 틀을 덧댄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첫 주제는 ‘서울 중·장년 남성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로, 중·장년 남성의 평생학습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과 이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 실렸다.

사업 목적

데이터 기반의 평생학습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내용

- 1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 시청과 업무 협력(15.6.29), 한국교육개발원과 MOU 체결(15.7.24)
- 2 「서울 시민 평생학습 참여 개인 실태조사」 실시
 - 서울 시민 3,600여 명 대상 개인별로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학습환경, 사회참여 인식 등 조사
- 3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데이터 수관 및 분석
 - 2,800개 기관, 109,000개 프로그램 대상 데이터 검증·분석



2015년 「서울시 평생교육 통계조사」

2015년 7월 3,600여 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 개인 실태조사」가 최초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0.3%로 전국 평균인 40.6%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서울을 5권역으로 나누어 참여율을 살펴봤을 때, 서북권의 참여율이 49.1%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이 37.7%로 11.4%의 높은 격차를 보였다. 많은 서울 시민이 ‘시간이 없어서’(128.9%), 평생학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거나’(-4.1%p)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1.6%p)를 꼽은 응답자는 적었다. 평생학습에 연평균 31만 원을 지출하고 62시간을 투자하는 서울시민은,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계발(형식교육 83.9점, 비형식교육 75.5점)’을 추구하고, ‘심리적 만족(형식교육 73.7점), 비형식교육 76.2점)’을

얻고 있었다. 「평생교육기관 통계조사」는 서울시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2015년 서울의 평생교육기관 수는 2,818개로 전년 대비 81개(3.0%) 증가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109,348개로 전년 대비 6,091개(5.9%) 증가했다. 서울 소재 온라인·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학습자 수는 연 1,834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415만 명(29.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대상의 수를 늘리고 더욱 정확한 검증을 통해 자료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 개발 기초 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 민병철 대리 | 정책홍보팀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특성화 모델 발굴

2015년에는 서울의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틀을 닦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평생교육 민·관·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솔루션 네트워크 위원회’에서는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평생학습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단체·기관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지니는 개방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서울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현황과 실태 분석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25개 자치구와 268개 평생교육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사업 목적

지역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추진 기반 조성

사업 대상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사업 기간 2015. 6 ~ 12월

사업 내용

- 1 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시범사업 1건 추진
 - 네트워크 현황에 대한 질적 사례 조사, 네트워크 자원 맵핑, 현장 실천가 원탁회의 및 워크숍, 실천과제 도출
- 2 서울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현황 분석 연구 수행
 -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268개 기관 담당자 대상
- 3 민·관·학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솔루션 네트워크 위원회 3회 개최

관계의 묶음, 그 실마리

네트워크! 흔하지만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 ‘네트워크는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사회학적 지위나 집단이나 조직을 연결시키는 관계의 묶음’이라 나온다. 2015년 기관이 처음 생겼으니 쌓였던 네트워크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래서 네트워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알아볼 수 있는 시범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은 평생학습도시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평생학습 여건을 지닌 지역이며 마을생태계가 잘 되어 있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적합한 마포구를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평생교육 현장과 가까운 조직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이 시범 사업은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양적 조사로는 얻을 수 없는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구축 했다는 점이 기존의 다른 사업과 다른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정책이나 사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서울시 평생교육 네트워크에 관한 데이터와 자료가 시급하다고 생각해, 서울 평생학습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를 동시에 수행했다. 사업 운영 기간이 좀 더 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서울의 평생교육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네트워크 구축의 시작이라고 본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은가. 특히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앞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기관, 민간단체, 학교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 이은주 대리 | 사업기획팀



더높이, 더멀리

평생교육 역량강화

문해교육교원 양성
서울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평생교육 역량강화 연수

문해교육교원 양성



초·중등 학력인정 기관에서 문해교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해교원 양성 교육을 수료하여 발급받은 이수증이 필요하다.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문해교육교원 양성 사업이다. 2015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35명의 대상자는 이론수업(50시간)의 8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15시간)을 이수하여 전원 문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대상자들은 문해교육개론을 비롯하여 교수법, 학급 경영 및 기관 경영, 기획 및 개발, 문해교육의 가치 및 교사 사명 등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교과목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마포평생학습관, 신갈야간학교, 안양시민대학, 영등포평생학습관에서의 현장 실습을 통해 문해교육 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관련 실무를 경험했다.

사업 목적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원 양성

사업 대상

고졸 이후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기관에서 문해교육 관련 자원봉사 경력자 또는 대학(교) 졸업자

사업 기간 2016. 7 ~ 12월

사업 내용 문해교육교원 양성 초등과정 운영

구분	집합연수	현장실습
기간	2016. 11. 16(월) ~ 11. 27(금), 6일	2016. 11. 30(월) ~ 12. 15(화), 5일
시간	50시간	15시간
참여인원	35명	



문해요? 문해요!

문해라는 단어는 평생교육 현장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직 낯선 단어인 것 같다. 문해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문해요?’라고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고, 내용을 이야기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반문한다. 99%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1%의 비문해자들이 있다.

보통 글을 배운다는 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글을 배우는 것이 그 이상의 의미이다. 글을 배우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지된 안내문을 보고 스스로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신청하기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는 삶 속에서 행복해하는 학습자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문해교육 사업을 담당하면서 사업에 대한 애정이 쌓이고 그 애정이 책임감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은 내가 에너지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 이아림 주임 | 사업기획팀



서울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서울 전역의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2015년 시범 사업은 자치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광진구, 동작구, 은평구, 종로구가 각자 현안과 요구에 맞는 주제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았다.

이 사업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모든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상호 맞물리는 것이 특징이다. 진흥원은 지원자로서 예산 직접 집행 및 모니터링을 통해

컨설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고, 컨설턴트는 자문 이외에도 평생학습 모티베이터(Motivator) 역할을 했다. 자치구는 컨설팅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컨설팅 일정과 예산 관리, 각종 보고를 수행하며 능동적으로 컨설팅을 이끌었다.

더불어 컨설팅 운영 지침과 현장에서 필요한 양식 등이 담긴 ‘서울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매뉴얼’이 발간되었다.



사업 목적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추진 역량 강화 및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사업 대상

심사를 통해 선정된 4개 자치구(광진구, 동작구, 은평구, 종로구)

사업 기간 2015. 7 ~ 12월

사업 내용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매뉴얼 개발

컨설팅 주제

구분	주제
광진구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동작구	평생학습관 신규개관에 따른 운영 방안
은평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네트워크 재구조화
종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매뉴얼 개발

- 평생교육 컨설팅에 대한 기본 개념과 프로세스 이해
- 컨설턴트·선정기관의 단계별 역할 및 필요한 수행 항목
-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양식



모두를 위한 ‘전담마크’

‘전담마크, 그라운드 위에서나 볼 법한 단어가 평생교육 현장에 등장했다. ‘서울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평생교육 맞춤’이기도 하고 ‘맞춤 컨설팅’이기도 하다. 사업이 진행된 지난 4개월간, 사업 담당자로서 컨설팅의 내용이든 운영이든 전담마크하기 위해 노력했다.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 부지런해지기로 했다. 두 발로 뛰어 컨설팅 현장을 방문하고 컨설턴트, 컨설팅 수요자 모두와 적극적으로 스킨십 했다.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은 모든 컨설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진흥원 담당자가 직접 집행하는 것. 일반적인 지원 사업과는 다른 방식이다 보니, 가끔은 너무 어렵게 가고 있나 싶기도 했다. 예산 집행이 자유롭지 못한 까닭에 자치구 주무관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컨설팅 시간에 겹칠일 과자 몇 봉이라도 지원해달라며 더러 귀여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래도 컨설턴트, 수요자, 진흥원이 고루 역할을 한 덕분에 높은 사업 운영 만족도뿐만 아니라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였지만, 개인



을 넘어 조직 차원에서 다 함께 배울 기회였다는 점이 더 좋았어요. 주제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과정 전체가 곧 컨설팅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의 현안과 요구에 맞춘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이 진행되었음은 물론이고, 자치구 조직 내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평생학습에 대한 내부의 관심이 비교적 저조했던 광진구와 종로구에서는 컨설턴트와 구청장이 만나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구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더 나은 평생학습을 위한 자치구의 고민을 들여다보고, 그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돌아보니 컨설팅 지원 사업은 수요자뿐만 아니라 지원자였던 나를 위한, 나를 깨우는 컨설팅이기도 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기관과 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더욱 많은 곳에서 누리기를 바란다.

◆ 전아림 주임 | 정책홍보팀

평생교육 역량강화 연수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는 서울시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관계자가 평생교육 정책과 환경변화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는 관리자 및 실무자.

관리자 과정은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의 서울시 통합부스 운영과 연계해 개최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생학습 소관 부서장(과장/팀장)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를 통해, 평생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평생학습 정책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가치를 나눴다.

실무자 과정은 ‘평생교육 실무자의 행복한 시간 (평행시)’을 주제로, 실제 업무 추진에 필요한 ‘현장 중심형’ 연수를 운영했다. 3회로 이루어진 실무자 연수에서는 의사소통과 사업 기획 역량 강화를 강의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현장 탐방으로 평생학습 실천 현장인 ‘지혜로운 학교’와 ‘삼각산 재미난 마을’을 방문했다.

사업 목적
서울시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서울시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간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대상
관리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생교육 소관부서장(과장/팀장)
실무자 : 서울시 자치구, 평생학습센터 및 유관기관 평생교육 실무자

사업 기간 2016. 6 ~ 12월



사업 내용

구분	일시	장소	내용	참여인원
관리자 과정	15.9.4(금)	코엑스 컨퍼런스룸	평생학습 의식 제고	16명
	15.11.17(화)	gs타워	通하는 평생교육사(의사소통 역량 개발)	
실무자 과정	15.11.19.(목)	lw컨벤션센터	사업계획서 작성비법(기획역량개발)	103명
	15.11.24.(화)	지혜로운 학교, 삼각산 재미난 마을	평생학습 실천 현장을 찾아서(현장탐방)	

학습과 소통의 시간, 평행시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들고, 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평생교육 활동가들이 만든다’라는 말처럼 평생교육 활동가들이 있어야 아름다운 평생학습도시 서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평생교육 활동가를 위해, 평생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시행하게 되었다.

연수 기획을 하며,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짧은 연수 시간이지만 행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주제가 ‘평행시’, 평생교육 관계자의 행복한 시간이다.

2015년 서울 ‘평행시’는 현장에서의 고충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 서로의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이 소통되는 시간, 연수 프로그램이 ‘학습과 소통’의 시간이 되길 희망하며 준비했다.

총 3차로 운영된 실무자 과정의 참가자 비율은 공공 영역 40%, 민간 영역 60%이었다. 기존의 공공 영역 위주 연수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여, 공공과 민간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배움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수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 또한 4.5점으로 높게 나왔다.



비록 기관 설립 이후 처음 개최된 연수인지만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지만, 연수에 참여한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동안의 고생을 잊게 해주었다.

앞으로 더 나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수요조사를 했다. 이후 연수에서 듣고 싶은 강의를 묻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평생교육의 트렌드, 우수 사례 분석, 공모사업 기획서 작성법, 평생학습 프로그램 설계 등의 의견이 나왔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이니만큼, 평생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를 마련해달라는 뜻일 것이다.

사업 담당자로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업그레이드된 ‘평행시’ 연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모든 평생교육인들이 매해 찾아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평행시’를 기대하길, 그리하여 마침내 평생교육계를 대표하는 연수로 자리 잡길 희망하며, 언제나 평생교육 현장의 연수에 대한 기대와 의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겠다.

◆ **이아림 주임** | 사업기획팀



삶을 배움으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일-학습 선순환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시민이 말하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행복학습센터는 카페, 공방,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의 여러 빈 공간을 활용한 동네 배움터다. 2014년 5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행복학습센터는 2015년에 관악구, 도봉구,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가 함께하며 총 10개 자치구에 51개 행복학습센터가 설치·운영되었다.

서울 행복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선 자치구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했다. 사업 현황과 추진의 애로점을 나눈 끝에 서울 행복학습센터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찾았고,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행복학습매니저 간담회와 역량 강화 연수를 각각 2차례씩 개최했고,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했다. 더불어 운영 사례집, 홍보 리플렛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SNS 등을 통해 배포해 널리 행복학습 센터를 알렸다.

사업 목적
시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 할 수 있는 동(洞)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사업 대상 행복학습센터 운영 자치구 및 관계자

사업 기간 2015. 5월 ~ 12월

사업 내용
행복학습센터 운영 기반 안정화 및 거점센터 지원체제 구축

- 자치구 거점센터 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행복학습센터 대시민 홍보 (리플렛, 영상, 운영사례집 제작·배포)
- 행복학습매니저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행복학습매니저 도움닫기
- 행복학습매니저 간담회 개최
- 행복학습센터 모니터링 실시
- 행복학습센터 성과공유회 개최

사업 결과
참여 학습자 수 | 3,420명
프로그램 수 | 176개
행복학습매니저 수 | 96명
지역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 78개
학습 동아리 | 45개



배움으로 행복을 엮는 사람들

천만 시민의 삶에 소소한 배움의 행복이 스며들기 위해 추진된 서울시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사업. 2015년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자치구가 파트너가 되어 함께 한 첫해다. 그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의 순간도 많았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업무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터라, 행복학습센터를 담당하는 실무자부터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자치구 선생님들과 농담처럼 하곤 했다. 가끔은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 일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행복학습센터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 때문이었다. “행복학습센터가 생기니 지역 주민끼리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또한 지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게 행복학습이구나 싶었고, 더 많은 사람의

각자의 배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을 통해 사람을 만나면서 빈 공간에 활력이 생겼어요.” 거창하고 대단한 배움은 아닐 수 있어도, 생활 속 소소한 배움이 주는 행복을 경험한 시민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경험담은 그 어떤 보상보다 가장 큰 위로와 응원이 되었다. 앞으로 서울시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서울답게 다양한 모습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금처럼 시민들에게 일상 속 배움의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쉼 없이 달릴 예정이다.

◆ 임지희 주임 | 사업기획팀



학습-일 선순환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학습-일 선순환 학습형 일자리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다시 지역 주민을 위한 강사로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다. 2015년에는 시민의 다양한 배움이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강북구, 구로구, 서대문구, 송파구를 선정하여 이곳의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 모니터링과 상시 의견 수렴으로 수행에 내실을 기했다. 더불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관리위원회를 꾸려 서울 전역의 학습형 일자리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발견과 순환의 기적

사실 처음부터 학습형 일자리 지원 사업의 담당자는 아니었다. 내부 사정에 의해 갑작스럽게, 그것도 심지어 공모사업 선정 심사 전날에 이 사업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밤을 새워서 심사 준비를 했고 다행히도 무사히 끝났지만, 그리 순탄치 않은 첫 만남 때문이었을까?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노답’ 상태라고 느꼈다. 그래도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한 시민의 한마디가 내 마음가짐을 바꿨다. “엄마에서 시민강사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는 점이 너무 즐겁습니다” 학습형 일자리의 존재 이유가 이 한마디에 모두 담겨있는 것 같다. 학습형 일자리를 디딤돌 삼아, 경력

사업 목적

지역주민의 다양한 학습 결과를 지역사회 활동(재능기부, 자원봉사 등)과 소득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기반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기간 | 2015년 6월 ~ 12월



단절 여성과 은퇴(예정)자 등 생애 전환기를 맞은 시민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또 이 배움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지역의 평생학습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인 ‘배움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비록 단기간의 지원 사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한계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서울만의 ‘발견과 순환의 기적을 만드는’ 학습형 일자리 모델을 찬찬히 만들어 나가고 싶다.

◆ 임지희 주임 | 사업기획팀



사업 내용

❶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공모·지원



강북구

도시농업 강좌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도시농업활동가 양성

구로구

스쿨 안전강사 양성과정
관내 초등학교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4대 분야 (교통·생활안전/성폭력 예방교육/식생활 안전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강사단 양성

서대문구

초등돌봄교실 1M 재미강사 프로젝트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마포평생학습관)의 돌봄교실 사업과 연계한 학습형 일자리 매칭모형 개발 → 강사기초역량이 있는 주민을 선발하여 교육 후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파견

송파구

기적을 만드는 세메리온 마을 강사 양성 프로젝트
송파구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네트워크 채널(주민센터, 복지관, 관내 초·중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해뜨는 민화 마을 강사 및 엽마품 인성코치 강사 양성

❷ 공모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참여학습자		학습결과의 순환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록자수	수료자수	경제활동 참여자수	사회환원활동 참여자수	
184명	157명	79명	35명	31개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민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습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시범 사업이다. 2015년 총 13개의 팀이 선정되어 지원받았다. 1인 1자율학습 모임은 학습동아리와 같은 개념으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기적으로 학습을 운영하는 모임을 말한다. 이번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의제 지향’, ‘지역 네트워크 지향’, ‘재능기부 지향’의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활동해, 여타 학습동아리 사업과 차별화를 두었다.

자율학습모임 하나 당 한 번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학습한 내용과 과정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었다. 또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평생학습의 꽃’이라고 불리는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학습 동기를 촉진하고 자발적인 학습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해본다.



사업 목적
자율학습모임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문화 및 학습의 일상화 도모

사업 대상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시민

사업 기간 2015. 9 ~ 12월



사업 내용

① 공모 지원 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주요내용
유형 1	지역의제와 결합한 평생학습 연구 지향 자율학습모임
유형 2	지역 네트워크 교류 지향 자율학습모임
유형 3	재능기부에 기반한 자원봉사 지향 자율학습모임

② 운영 현황

지원분야	동아리명
지역의제(4개)	교실 밖 융합 역사학교, 역사 톡 너나들이, 두레누리, 주인공(주고받는 인권공부모임)
네트워크(4개)	화양연화, 마을 주민기자 동아리, 뽀류토크 크리에이터, 바늘도사 11
재능기부(5개)	바늘소리, 미래준, 너나들이-평생교육사 동아리, 도담도담 한자연구회, 따동(따뜻한 동화모임)

시민과 맞닿아 소통하다

우리 원 대부분의 사업이 평생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직접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가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 재미있는 사업임은 틀림없다. 다양한 학습동아리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사용과 결과 보고에 익숙하지 않아 볼멘소리 하기도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고, 뜻이 맞는 여럿과 함께하니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도 느꼈다”고 말해주는 그들을 보면서 팬스레

나 자신도 흐뭇해졌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의 높은 평생학습 참여율(학습동아리 참여율)이 마냥 부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라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각 자치구나 기관에서도 학습동아리 사업을 하고 있고 점차 그 대상이 확장되고 있으니 언젠가는 우리도 그리되지 않을까. 조금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학습동아리의 주된 대상이 4-50대 여성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층, 남성들, 회사원들, 장애인들과 같이 현재 학습동아리 범위에 조금 벗어나 있는 대상을 타겟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부려본다.

◆ 이은주 대리 | 사업기획팀

시민이 말한다

행복학습‘사랑방’을 위해

나는 평소에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년 세대들이 사회로 나와 함께 소통하고 배움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늘 물음표였다. 그런데 마침 행복학습센터를 만나게 되었고,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다. 행복학습매니저 활동을 통해 평생교육을 실천하면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배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2015년 여름에 활동을 시작해서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하여 2016년부터는 내 손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찾아가는 행복학습 서비스를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행복학습센터를 만들어가고 싶다. 이를 위해 다가가기 쉽고, 편안하고, 근성 있는 행복학습매니저가 되고 싶다.

◆ 김윤희 | 성동구 책단지 풀단지 행복학습센터 매니저



엄마에서 시민강사로, 새로운 기회의 발견!

평소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학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구로구 스쿨 안전 강사 양성과정을 수강하게 됐다. 안전 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배운 내용을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싶었다. 또 수료 후 시민강사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주었다. 주부로서 살다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발 내디뎠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어디 가서 내 이름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생활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어느 회사에 취업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사에게 혼나면서 힘들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평생교육을 통해 부담 없는 시작을 할 수 있어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프로그램 수료 후, 이대로 끝내기에는 아쉬워 공부를 더 해볼 생각이다. 강사님, 수료생들과 함께 협동조합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고, 안전과 관련된 다른 강연이나 인터넷 강의도 찾아서 들어보고 관련 자격증도 이수할 생각이다. 혹시나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안전에 관한 공부는 계속해볼 생각이다.

◆ 조성아, 전은미 | 구로구 스쿨안전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따뜻한 동화 모임’, 그들의 이야기

항상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던 나. 다만 그때마다 배역에 심취해 연기하며 읽어줬더니 참 좋아했었다. 아이들 반응에 어느덧 자신감이 붙었고, 급기야 다니는 교회에서도 인형극에 시도했다. 공연이 끝나자 쏟아지는 칭찬을 들으니 나도 몰랐던 내 안의 동화구연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렇게 동화구연 지도사 과정을 듣게 되어 지금의 박경숙 대표님과 만나게 됐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 열심히 연구하고 배운 덕에 동화구연 대회에 나가서 대상도 받게 되었다.

동화구연을 연구하며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가 모두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한 나를 보고 가장 먼저 좋아해 준 것은 오히려 나 자신보다는 아이들이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니 아이들은 물론이요, 가족들과도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 집에서도 동화극 연습을 하다 보니 올케들과 시누이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내 삶의 질도 더 올라가는 것 같다. 게다가 자율학습모임을 통해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할 기회까지 주어졌으니, 나와 가족 더 나아가 우리 동네에 행복을 전해줄 수 있어 기쁘다.

◆ 양선미 | 자율학습모임 회원

평생학습 지도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동화구연을 함께 공부하게 됐는데, 혼자 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더욱 풍성하게 공부하기 위해 모임에 참가하게 됐다. 대표님을 비롯한 학습모임 멤버들과 연습도 하고 연구도 하다 보니 동화극 공연은 물론 매사에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연습하는 즐거움과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재능기부 활동은 때론 생업보다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아까운 줄 모른다. 오히려 투자한 시간과 노력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얻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급여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요즘은 봉사활동이 학교 프로그램으로 짜여있다 보니 봉사가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이들이 엄마가 즐겁게 연습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고 진정성을 느꼈던 것 같다. 기부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학교 봉사도 스스로 나서서 하고 엄마처럼 즐겁게 해야겠다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

◆ 전태일 | 자율학습모임 회원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학습 대중화

웹진 <다들>과 스마일프레스
진흥원 홍보(CI제작, 언론보도, 홈페이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웹진 <다들>과 스마일프레스



창간호(이재주 마포평생학습관 팀장)



4호(곽금순 한살림 상임대표)



3호(신민선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창간호(故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남거나 빠진 것 없는 모두를 뜻하는 ‘다’와, 편편하게 넓게 트인 땅을 의미하는 ‘들’이 만나 <다들>이 되었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전문 웹진 <다들>은 서울 시민 ‘다들’ 폭 넓고 유익한 평생학습 정보를 누릴 수 있는 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2015년 11월 창간됐다.

창간 당시 <다들>은 ‘다들, 깨움’, ‘다들, 배움’, ‘다들, 채움’, ‘다들, 다움’의 코너로 구성되어 평생학습 전문 이슈와 트렌드, 지역의 다양한 소식, 원장의 명사 심층 인터뷰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소식들로 채워졌다. 그 형식과 구성의 신선함은 대한민국 평생학습계의 이른바 ‘<다들>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다들>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어줄 시민기자단 ‘스마일프레스’도 첫 걸음을 뗐다. 제1기 스마일프레스는 서울시내 자치구 10곳을 대표하는 시민들로 선발됐다. 이들은 매달 1건의 기사를 작성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와 <다들>에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전문 기자 양성 교육인 ‘시민기자 아카데미’를 수차례 열고 이들의 역량 강화에 힘썼다.

사업 목적
체계적 평생학습 정보 공유의 장 마련 및 평생학습 문화 조성

사업 대상 전국 평생교육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발간 주기 월 1회 (사안에 따라 호외 발간)

편집위원회	
원내	원외
발행인 김영철 원장	발행인 이희수 교수(중앙대)
편집인 유창주 상임전문위원	편집인 신민선 회장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편집장 김혜영 팀장	편집자문 이유정·신지운 기자
간사 전아림·신다영 주임	제작자문 조지영 디자이너



위 | 창간호, 서평원 직원들의 창간 축하 메시지
아래 | 2호, 송년 인사 박남준 시인 <따뜻한 얼굴> 시 인용

내용 구성

다들, 깨움 평생교육계의 지식과 동향 분석 등 전문적 정보 제공

다들, 배움 인물 인터뷰/기관 방문 등 벤치마킹 정보 제공

다들, 채움 인물의 스토리 기반 책·영화·물건 추천, 트렌드 정보 제공

다들, 다움 기관/지역 소식 및 시민기자단 제작 무형식 학습지도 제공



모바일 화면



창간호(故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2호(연세대 미래교육원, 서공임 강사)



3호(박원순 서울시장)



4호(김창엽 한국평생교육실천전략연구소 소장)



4호(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5호(이소연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소장)



5호(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창간호(중랑구평생학습관, 이세영 평생교육사)

구분	코너명	필자(대상자)	타이틀
1호	FOCUS	이희수 교수(중앙대)	‘다들 처음처럼, 평생 신선하게’
	MENTOR	신영복 교수(성공회대)	“모든 이가 스승이고, 모든 곳이 학교”
	VISIT	중랑구 평생학습관	‘처음’ 찾아온 중랑구평생학습관
	PICK	이재주 팀장(마포 평생학습관)	나의 처음, 모두의 처음
	OPINION	유창주 전문위원	비폭력 대화법을 배워야 한다
	INSIDE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창간사, 이달의 서평원 소식 11가지
	SMILEPRESS	제1기 시민기자단	서울 지역 평생학습 소식
	STORYMAP	김영미(시민기자)	우리 동네 나무 이름 알아보기
2호	FOCUS	윤여각 교수(방통대)	선물로서의 교육: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
	MENTOR	김신일 교수(서울대)	“모든 사람은 배우는 능력과 학습할 권리를 타고 났다”
	VISIT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PICK	이진이 대표(주민자치와 평생교육네트워크)	마을, 교육, 그리고 나의 꿈
	OPINION	유창주 전문위원	부는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FIELD	전예니 평생교육사(서대문구 평생학습관)	Minimalism(미니멀리즘) in 서대문구
	INSIDE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네트워크 토크콘서트, 1인1자율학습모임 우수사례발표회, 행복학습센터 성과공유회
	SMILEPRESS	제1기 시민기자단	서울 지역 평생학습 소식
	STORYMAP	최자윤(시민기자)	상경한 대구 소녀, 서울을 배우다

◆ 황미연 과장 · 전아림 주임 | 정책·홍보팀



2호(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



5호(동작구행복지원센터, 정명옥님)

스마일프레스

사업 목적
자치구 평생학습 현장의 이슈와 정보 공유 및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사업 기간 2015. 8 ~ 12월

선발 인원 총 10명(관악구, 강북구, 성동구, 양천구, 은평구, 송파구, 서대문구, 성북구, 동작구, 광진구)



시민기자 아카데미

일시	내용	강사
09.18	(1회) 시민기자단 발대식	김영미(신구대 교수)
10.02	(2회) 무형식학습 개념이해, 스토리텔링	김영미(신구대 교수)
10.16	(3회) 무형식 학습지도 제작 실습	김영미(신구대 교수)
10.30	(4회) 기사 작성법과 취재 방법	정남기(한겨레 부국장)
11.12	(5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실무	김은국(서울시 언론담당관 인터넷뉴스팀장)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2015년에 서울시에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전혀 감조차 잡히지 않는 곳이었다. 학교 교육과 사교육의 틈에 끼여 분기별로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평범한 학부모인 나에게 ‘평생교육’이라는 말은 마치 자식 교육에 평생 매달려야 한다는 강박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눈앞의 학교 교육에만 매달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보면 자식 교육에 거시적인 안목이 생기고, 지금 현재의 삶이 좀 여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전환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

결혼 후 십여 년간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의 교류가 새로운 인간관계의 전부였던 나에게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시민기자’로서의 활동은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되었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시민기자단의 모임과 교육 일정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시민기자 분들의 모습에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 작성하는 기사라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면서도, 쓸 기사거리를 찾아 내가 몸담고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동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유익한 정보들을 찾아가는 것도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매사에 게으르고 무사안일하게 살고 있던 내가 마감에 쫓겨 시민기자를 하겠다고 한 선택을 몇 번이나 후회하면서도 결국 기사를 제출하고 난 뒤의 성취감을 느낀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시민기자’로서의 활동은 기자로서의 무슨 일을 해냈다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와 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만 갇혀 있다가, 내가 외롭게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가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나 콘텐츠를 활용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일원인 ‘시민’이라는 자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알게 모르게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조직과 관계 속에서의 ‘나’라는 존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는 중이다.

◆ 김영미 | 제1기 시민기자(강북구)



진흥원 홍보기반 구축

2015년은 기관 설립을 알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홍보의 기틀을 마련한 해였다.

독립 법인으로의 전환을 기념하여 영문 기관명을 SMILE(Seoul Metropolita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으로 명명했고, 이에 맞추어 미소를 모티브로 한 CI를 제작해 진흥원 브랜드를 구축했다. 천만 서울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홈페이지도 새로이 단장했다. 시민이 원하는,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개선이 이루어졌다.

평생학습 울타리 내에서만 머물러 있던 관심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 또한 시작됐다. 2015년 당시 공중파 방송과 중앙 일간지에 실린 평생학습 관련 기사가 10건에 채 미치지 못함에 문제의식을 갖고, 서울 평생학습의 여러 모습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사업개요

CI 제작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심볼은 Seoul Metropolita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의 이니셜 SMILE과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지향해 표현하고 있다. M자가 웃는 눈을 상징하고 있고, 서브로 입모양을 함께 표현하여 스마일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 전면개편 주요사항>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서평원에 바란다', 대신민 설문기능 개발
- 서울시 내 2,800여 학습기관 안내를 위한 학습지도 기능 구현
- 서울시민 무형식 학습스토리 발굴을 통한 평생학습 동력 창출
-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시 소셜 미디어 자동 연계 기능 개발
- 웹접근성 · 웹호환성 기준 충족 및 관리 기능 개선

진흥원 홍보물



홍보동영상

리플렛

브로셔

언론 보도

연번	일자	매체명	제목
1	2015.5.26.	조선일보	강남구 동네 고수 2,000명, 재능기부로 강단에 서다
2	2015.6.2.	중앙일보	반퇴시대, 제2 인생설계 돕는 평생학습
3	2015.7.24.	조선일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KEDI MOU 체결
4	2015.9.9.	아시아투데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박람회 서 서울통합홍보체험관 운영
5	2015.9.18.	서울신문	꿈 이뤄주는 행복학습센터
6	2015.9.24.	아시아투데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의 MOU 체결
7	2015.11.18.	아시아투데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15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양성 연수 운영
8	2015.11.18.	아시아투데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 평생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시행
9	2015.12.17.	아시아투데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누리는' 행복학습센터 성과 공유회 개최

◆ 황미연 과장 | 정책·홍보팀

홈페이지, 내 안의 열정을 일깨우다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새 원장님이 부임하신 직후인 지난해 봄,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우리 원의 홈페이지 부실이 지적되었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원순 시장님은 “진흥원이 설립 초기이니 1년 후를 기대해 달라”며 양해를 부탁했다. 그간 구색만 갖춰 운영되던 서평원 홈페이지가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다.

홈페이지 개편이 시급하기에 당장 업체를 구해 개발에 착수하고 싶었지만, 나는 JAVA 언어가 뭔지도 모르는 ‘정보화 무지랭이’일 뿐이었다. 학수고대하던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던 건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후인 10월 중순이었다. 예산 편성을 위한 이사회 의결부터 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넘어갈 때마다 나는 조금씩 지쳐갔던 것 같다. 행정 처리, 어려운 IT 용어 등에 치여 가끔은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스스로 되새겼다. “고달픈 일상을 끝도 타지 않고 미화하지도 않은 채 견뎌내게 하소서.”(칼 라너, <일상> 중)
우여곡절 끝에 홈페이지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데굴데굴 구르며 만든 홈페이지인데 어느덧 정이 흠뻑 들어버렸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홈페이지를 살피고, 서평원 공식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들여다본다. 콘텐츠도 채워 넣고, 직원들에게도 함께 업로드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그동안 몸살을 앓는 내게 기죽지 말라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참 좋은 리더와 동료, 후배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내 안의 열정을 일깨워준 홈페이지에도, 이제는 쿨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 김나영 대리 | 정책·홍보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전국 평생교육기관과 국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유의 장이다. 2015년 4회를 맞은 박람회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강동구 등 12개 자치구와 함께 ‘서울 평생학습, 먼 길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서울 지역 통합 홍보·체험관을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각 자치구의 특색이 담긴 다채로운 평생학습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진흥원도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릴레이 평생학습 스탬프 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그간 서울 지역은 개별적으로 참여해왔으나, 2015년 진흥원 개원과 함께 처음으로 통합 홍보·체험관이 꾸려졌다. ‘처음’이었기에 순조롭지 않은 순간도 많았지만 모든 진행 과정은 자치구 관계자와의 민주적 소통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흥겨운 배움의 축제에서 차질 없이 서울의 우수한 평생학습정책과 사업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사업 주제

서울 평생학습, 먼 길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업 목적

서울 지역 통합 홍보·체험관 설치·운영을 통해 서울형 평생학습 우수 사례 확산 및 타 지역기관과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기간

2015년 7월 ~ 9월

사업 내용

서울시 평생교육정책 홍보, 자치구와 함께하는 릴레이 평생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과 구청장이 함께 하는 동행토크(왼쪽부터 김영철 원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먼 길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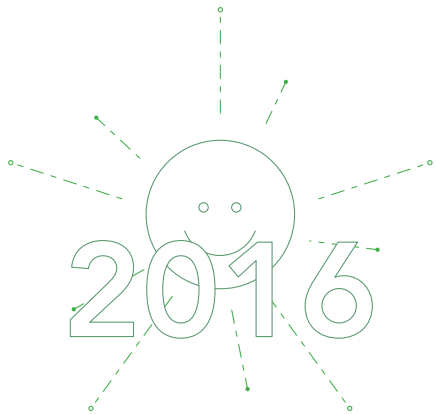
2015년 무더운 여름, 내게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서울 통합 부스 운영이라는 미션이 갑자기 떨어졌다. 준비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박람회 행사를 개최해본 경험도 없었다. 더군다나 서울 ‘최초’로 통합 홍보·체험관이라니. 얹친 데 덮친 격이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의심과 부담감으로 시작하게 됐다. 나 자신의 수행 역량에 회의감이 들었기에, 이 업무에 애착을 갖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더욱 더 힘든 순간도 많았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기도 했다. 그런데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믿고 함께 해준 자치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가 자치구들을 아울러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통합’ 참가였기에 오히려 힘을 낼 수 있었다. 홍보·체험관 제작 업체 선정부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설 설치 등 모든

과정에 있어 박람회 참가 경험이 풍부한 자치구 실무자들의 의견을 구하며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웠다. 그렇게 여름이 훌쩍 흘렀다.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박람회. 서울의 주제는 ‘서울 평생학습, 먼 길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 박람회 현장은 아름답다기보다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았고, 밀려오는 시민들로 인해 ‘정신줄’을 놓을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격려해준 자치구 실무자들 덕분에 무탈하게 3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비록 준비 과정은 힘들었을지라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열정을 다 한 자치구 실무자, 학습동아리, 평생교육 강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눈을 반짝이며 서울 통합 부스에 찾아와 준 시민들까지 모두와 함께 ‘동행’ 했던 값진 시간이었다.

◆ 임지희 주임 | 사업기획팀

2016 SMILE

2016년에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의 배움과 행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서울 평생학습 이념을 담다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 평생학습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

연대와 협업의 힘이 바탕이 되어 서울 어디에서나 양질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기관, 사람, 분야를 넘나드는 촘촘한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민관학 교육협력망 구축 및 공동사업 실시
-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해교육교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시민의 삶 속에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다

‘우리 동네’에서 ‘내 이웃’과 더불어 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서울 곳곳에서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평생학습 행사가 펼쳐집니다. 시민의 일상 속 학습 문화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일상에서의 학습문화 활성화

-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지원
- 생애전환기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모델 개발
- 시민참여 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 개최

2016 SMILE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위한
평생학습 혁신모델을 만들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평생학습이 바로 우리 사회 전체의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는 핵심 동력입니다. 시민의 힘이 곧 서울의 힘이기여, 시민의 힘을 일깨우는 평생학습의 혁신모델을 설계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혁신전략 및 정책개발

-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모델 개발
- 서울 시민의 시민력 기준 및 평생학습지수 개발
-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이슈브리프 발간
-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 조사 실시

다 함께 배우고 다 함께 누리는
서울 평생학습을 알리다

지역에 흩어진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를 유용한 정보로 다듬고,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생학습 이야기를 발굴해서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느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평생학습 대중화 기획 사업

- 평생학습 정책 동향정보 웹진 서비스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 진흥원 홍보물 제작 및 언론캠페인

서울은 학교다

평생에 걸친 끊임없는 배움으로
서울 시민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제, 서울 전역이 지붕 없는 거대한 학교가 됩니다.
배움으로 웃는, ‘서울은 학교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풍부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듭니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서울은 학교다

시민이 만든다

현장이 성장한다

서울학습은 혁신한다

참여의 장 조성 | 소통채널 서비스 | 정보공유 플랫폼 서비스

지역평생학습성장지원 | 서울평생학습 협의체 운영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모델개발 | 시민평생학습 진흥모델개발

특히 시민들을 위해
‘서울은 학교다’라는 전략 슬로건 아래에,
3년(2016년~2018년)동안 ‘시민학교, 마디학교,
일터학교, 포용학교’ 생태계의
시민학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민학교 시민 교양 강화, 대학처럼 수준 높게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대학 교양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시민청과 은평학습장,
중랑학습장 3개의 캠퍼스가 있고 대학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높고 넓게 서울시 시민교육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마디학교 인생의 큰 마디, 스마일의 손을 잡고 건너요

생애 전환기, 즉 인생의 마디에서 새로운 역할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인생 마디와 연관된 사업의
전문가 양성, 좋은 부모로 만들어주는 ‘부모시민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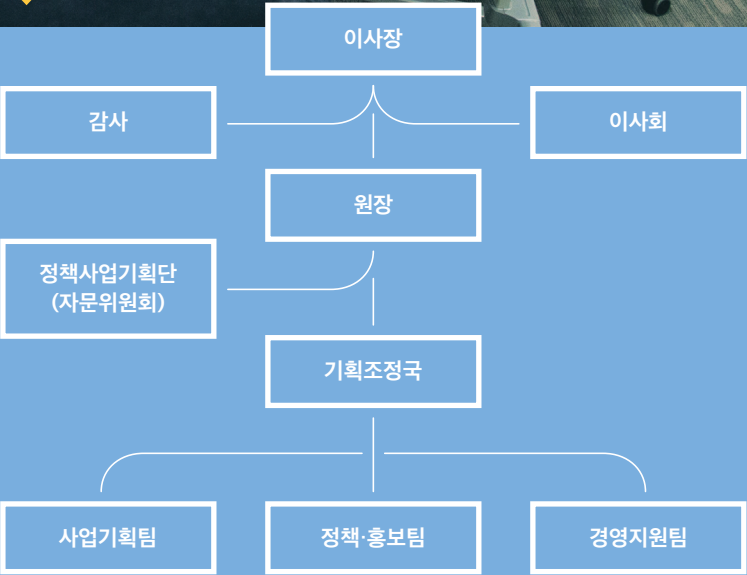
일터학교 일터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일터.
그곳에서 누리는 평생학습입니다. 독서 기반 학습동아리
1,000개를 육성하고, 서울형 일터행복학습센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포용학교 서로 기대며, 안으며

학습 소외 계층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한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배우는 서울시문해교육 종합지원,
청년NEET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 지원을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구성원

원장	김영철	
기획조정국	국장	-
	상임전문위원	유창주
사업기획팀	팀장	노희숙
	대리	이은주
	대리	윤비
	주임	이아립
	주임	임지희
정책·홍보팀	팀장	김혜영
	과장	황미연
	대리	김나영
	대리	민병철
	주임	전아립
	주임	신다영
경영지원팀	팀장	박지환
	대리	한태환
	주임	김지혜
	주임	홍슬비
	주임	조한준



16년 제3기 혁신기획단

이름	구분	주요경력
박재동	위원(단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교수/ 경기도 교육청 '꿈의 학교' 운영위원장
강대중	위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진성	위원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삼	위원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부서 장학사
김윤정	위원	일본 수도대학도쿄 교수/ (前)동경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연구과 연구원
김찬호	위원	하자센터 부센터장/ (前)서울시대안교육센터 전문 연구위원
남경아	위원	서울시 50+재단 서북캠퍼스 관장
백미현	위원	성신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이지혜	위원	한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대학 교수
임지택	위원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12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
정윤수	위원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문화평론가/ (前) 플로워은집 사무국장

이사회

이름	구분	주요경력
윤여각	이사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서울평생교육연합 회장
김영철	상임이사(원장)	(前)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前)동아시아미래재단 대표이사
리상섭	이사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조교수/ 리더십센터 센터장
박영숙	이사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이민선	이사	유니레버코리아 사장
이희수	이사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
정민승	이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한국평생교육학회 기획위원장
최규복	이사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용복	이사(당연직)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한상로	이사(당연직)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수현	이사(당연직)	서울연구원 원장
정훈	감사	(前) 신한 회계법인 회계감사 / 안세 회계법인 이사
오경희	감사(당연직)	서울시청 평생교육담당관

서울 평생학습 이념을 담다

함께하는 사람들



2015 연차보고서

평생학습 서울함

서울 평생학습 일 년을 담다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기획편집 정책·홍보팀 김혜영 팀장, 전아림 주임
발행일 2016년 7월
디자인 그래픽 피엘에프(GRAFIK P·L·F)

주소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화 02-719-6093
팩스 02-2149-1268
홈페이지 <http://smile.seoul.kr>

